

세계기도정보

[멕시코] “멕시코서 평균 2.5개월마다 시장 피살”…대부분 총격당해
[온두라스] 복음주의자들, 총선 앞두고 전국적 기도운동 전개
[말레이시아] 고등법원, 레이먼드 코 목사 가족에 97억 원 배상 명령
[스페인] 헤레스 시청, ‘성경의 날·개신교 종교개혁 기념식’ 공식 개최
[러시아] 우크라전 참전 남성 사망 보조금 챙기는 러‘검은 과부들’의 ‘결혼 사기’
[미얀마] “예수를 버리라” 협박에 가족 신앙 지키며 피란길 선택
[나이지리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올해 들어 기독교인 7,000명 살해돼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 딸, 예수 만난 간증 전해…“이슬람은 평화를 주지 않는다”
[우루과이] 라틴복음주의연맹, 우루과이 안락사 합법화 강력 규탄
[루마니아] 영어 기독학교 개교…“신앙과 학문을 함께 세운다”
[지부티] 77세 대통령 6선 위해 대선후보 연령상한 폐지 추진



2025. 11

멕시코에서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정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바다를 넘어..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흘러 또 흘러간다.

11월 8일 주일, 이번 전도 훈련 기간 동안 나는 낮에는 현지 주방 팀을 도와 설거지를 하고,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각 지역 교회에서 “킹 오브 킹즈” 영화를 상영했다. 상영 후에는 미겔 목사 – 호엘 목사 – 빠고 형제가 돌아가며 복음을 제시했다. 두 달 동안 800명이 넘는 어린아이와 어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오늘은 내가 복음을 제시하며 영접 기도를 인도했다. 우리는 서로서로 배우고 있다.

이곳 “하늘 강” 마을에는 이곳에는 내년 1월, 부산행복한교회 주일학교 교사 훈련팀이 들어올 곳이다. 이어서 3월에는 내가 이곳에서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을 훈련하고, 마지막으로 4월에는 호엘 목사와 그의 교인 31명이 들어와 전도 사역을 이들과 함께 진행한다.

주일 저녁,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우리 방에 모두가 모였다. 내일이면 각자의 자리로 떠난다. 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누던 중, 갑자기 미겔 목사가 나에게 말했다: “목사님, 정말 말씀하신 그때에 은퇴하실 겁니까? 목사님께서 은퇴하신다고 말씀하신 이후, 우리가 모여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시면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각자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나눴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60세가 되면 교회 사역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처럼 사역할 수는 없지만, 선교사로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호엘 목사는 저처럼 선교사로 살 수는 없지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저와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빠고 형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에 나는 적지 않게 놀랐다. 나의 은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내가 했던 일을 어떻게 이해할지 고민하게 하고, 스스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다. 내가 은퇴하기 전, 조금이라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배우려 하는 이들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 11월 21일부터 다시 팔렌케에서 전도 후 새인 자들을 정착시키는 훈련이 진행된다. 몸은 너무 지쳐 있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 기쁘시죠?”

안돼요

10월 19일 주일, 멕시코 메리다의 미겔 목사로부터 동영상과 사진들이 나에게 도착한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오늘은 한 마을에서 전도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내 줄리가 영접 기도를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안돼요!’라고 외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아내가 그 아이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요…흐흐흐’ 눈물을 흘리는 아이를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너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단다. 그런데 조금만 더 영화를 같이 보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자 모두가 큰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희에게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10월 29일 금요일, 19일동안 2만 킬로미터를 운전해 멕시코 집에 오니 정말 좋다. 그러나 곧 다시 미국에서 받은 물품을 차에싣고 치아파스의 팔렌케로 떠나야 한다. 다시 1,450킬로미터를 더 운전해 그곳으로 가려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11월 7일 금요일, 오늘은 호텔 목사가 자신의 교회 장로 두 명과 함께 팔렌케에서 전도 훈련을 진행한다. 치아파스로부터 시작되는 멕시코 전도 집회를 준비하며 나는 크게 두 가지 영역 ① 어린이 전도를 위한 주일학교 교사 훈련 및 지속적 공과 공급, ② 청소년/성인 전도 훈련 및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늘은 청소년/성인 전도를 위한 훈련으로 51명의 지역교회 리더들이 모였다. 호텔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서 진행 중인 전도 훈련 학교를 이곳에 접목했다. 이번에 함께 온 장로들은 그의 제자들이다. 열정적으로 훈련시키는 스승 같은 제자 호엘의 모습, 그리고 그를 닮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다.

11월 8일 토요일, 실습에 참석한 한 연세 많은 리더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울음소리에 놀라 내가 실습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말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리더인데, 이제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의 흐느낌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스페인어와 마야어를 사용하던 호텔은 이번에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출어로 사역을 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셀탈어로 복음을 전하며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다. 나와 함께 방에서 자고, 흔들거리는 트럭 짐칸에 몸을 싣고 함께 이동하며 그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목사님, 제가 참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 성장에만 집중했는데,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선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이 긴급하게 필요한지 깊이 깨달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목사님,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또 각 교회의 상황이 다르니 우선순위에 대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이제 나의 자리에서 이 일을 함께 섬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11월 기도제목:

1. 11월 21~22일에 팔렌케에서 참여하는 지역 교회 리더들이 먼저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2. 1월 및 4월 치아파스 전도에 합류하기 위해 훈련 중인 메리다 현지 교회들이 도움받는 교회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선교의 대상에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체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3. 저희 부부의 건강을 위해.